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조롱과 선동의 배후 관계에 대하여

오와 분노가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롱보다 선동은 훨씬 더 정치적인 수단이 되기 쉬우며 맹목적이고, 감정적이다. 선동에는 오직 흑백논리만 있고, 타인의 생각과 의식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있다. 노인을 앞세워 앵벌이를 했다거나,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에게도 죄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선동의 영역이다. 잘못된 부모의 덕으로 자식이 특권을 누렸으니 벌을 주자는 의미다.

누군가의 흔들리는 심리에 파고드는 것이 선동의 치졸함과 무책임성이다. 이러한 선동의 생리는 상대방을 먼저 적으로 그리고 나서서 '악마화'로 나타나며, '우리'는 억울하게 최소한의 몫마저 뺏기고 있다고 호소함으로써 '편 만들기'를 하는 것이다. 이 '갈라치기 문법'의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국민을 유대인과 독일인으로 나뉘던 독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언어는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통과 이해 대신 교묘하게 왜곡과 조작을 하는 역기능도 있다. 언어의 이러한 이중적 기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언어의 순기능보다는 파괴적 역할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이다. 우월적 시선으로 마치 중대한 공익적 책무인 양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집단을 독하게 모욕하고 비웃음거리로 삼는다.

사실 이런 일은 공익을 위한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자부심이 출발점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자부심과 이면의 숨겨진 욕망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충돌하는 것이다. 조롱과 선동의 언어는 얼핏 감춰진 사태를 사

납지만 예리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금 차분하게 보면 거기에는 세상의 흐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자들의 욕망과 탐욕이 따리를 들고 있다. 여기에 조롱과 선동을 퍼 나르며 경쟁하듯 난장을 벌이는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합세한다. 이런 생산자와 언론 매체의 유통구조를 통해서 가공된 현실과 사실들이 부지런히 만들어지고 배달된다.

중심을 향한 질주 욕망, 요즘 말로 '인싸'의 본질은 자신의 무력과 무능에 대한 은폐된 두려움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야싸'로 밀려나서, 관심 밖에서 기웃대는 일이 누군들 반갑겠는가. 그렇다고 아무것이나 마구잡이로 수단을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다행히 조롱과 선동이 주는 '사이다'의 맛은 몇 번은 시원할 수 있으나, 그 유통기간은 매우 짧다. 고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방식으로 조롱과 선동의 언어를 마구잡이로 상품화하는 탓이다. 신화 속의 강도는 행인들을 붙잡는 뒤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잡아 늘여서 죽이고, 침대보다 크면 밖으로 나온 부분을 잘라서 죽였다. 자기의 기준을 절대 진리로 만드는 잔인한 침대에서는 누구라도 조롱과 선동적 악마화의 대상이 된다.

이 희망 없는 침대 대신에 잘못된 것과 어리석음에 우아하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일이다. 브레히트의 시 한 구절이다. "마당의 구부러진 나무가 토질 나뭇 땅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으레 나무를 뭉개었다 욕한다." 이에 따르면 조롱과 선동이 자라는 토양은 곧 우리 자신이다.

社說

꼬리 잡힌 공직자 땅 투기 발본색원해야

광주·전남 경찰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을 사들인 전·현직 공무원들의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잇따라 행정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잇따라 제 광주시청과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광산구청 등 여섯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광주 모 구성 간부급 퇴직 공무원인 A씨가 광주시의 도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 2017~2018년 해당 부지 인근 수십억 원 규모의 세 필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실제 개발로 이어져 일부 보상까지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산정지구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 의혹 10여 건을 제보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전남경찰청은 강진 군청 소속 공무

원 B씨가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해당 부지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포착하고 강진 군청과 지역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행정기관 및 경찰의 조사·수사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산정지구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달 말 시·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지만 투기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늦게나마 광주·전남 경찰이 공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놔야 하면 한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것만이 그나마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달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전남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제검토를

전남대학교가 의·치·약학과 등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과 관련해 지역 범위를 전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또다시 광주 지역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고교 진학 담당 관계자들은 잇따라 전남대를 향한 방문,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 지원 범위에 전복을 포함하되 대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전북대가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과 관련해 지역 범위를 전복으로 한정하는 상황에서 전남대가 지역 범위에 전복을 포함함으로써 광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전남대는 2023학년도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2022학년도 41%에서 62%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자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

업생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전남대와 같은 국립대인 전북대의 경우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자격을 '전북 고교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청은 수년 전부터 전남대 측에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지만 전남대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물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 대학은 호남권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지역 인재 전형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남대의 전형 방식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전북대가 지역 범위를 호남으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대만 기존 전형 방법을 고수할 경우 이 지역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남대 측은 지금까지도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 고

4차 산업혁명과 서남권 문화 마케팅 전략

에 비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여겨져 왔는데, 젊은 판소리꾼들이 우리 소리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명창과 고수가 진행하던 지금까지의 국악 장단이 아니라 빠른 리듬에 얽힌 판소리가 세련된 현대 춤과 어울려 신선한 장르의 새로운 음악으로 변신하고 있다.

가야금과 거문고, 아쟁 같은 고전 악기로 연주하던 범주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기타와 드럼, 전자오르간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이 창작 판소리를 통해 대중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수궁가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대중 앞에 소개시킨 이번 '범 내려온다' 영상 외에도 판소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모습도 이채롭다. 이처럼 다른 장르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웃음 입을 무대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판소리 대중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전통의 소리를 원형대로 가지 있게 보존해야지 학술적 고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함부로 변형시키면 되느냐고 나무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용기 있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던 판소리가 점점 흥미로워지고 고전음악과의 심리적 거리 간격을 좁혀 줬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수한 우리 문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아서야 미래로 계승될 수 없고 세계 속의 음악으로 확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홍보 영상을 통해 목포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즉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소박하고도 진솔한 이야기와 특색 있는 영상을 통해 자기 고장을 꾸밈없이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을 깊이 인식하고 발상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이루어야 하며, 목표·무안·신안·진도·완도 등 서남권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광역화된 문화상품으로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변화를 감지하는 것 만큼이나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목포시와 신안군이 '한국 섬진흥원'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신안군수가 대승적 차원에서 목포시에 양보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서남권 자치단체들도 목포 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다. 지역 상생 차원의 배려와 협력의 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나온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거울 삼아 서남권이 지니고 있는 블루 오션의 끊임없는 발굴, 문화와 어울린 관광자원 개발 그리고 바다와의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주축이 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간과 행정이 함께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이현진
전 목포시 국장·경영학 박사

최근 '퓨전'이란 용어가 우리 일상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퓨전 음식, 퓨전 의상, 퓨전 음악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이 단어가 낯설지 않고 활용하는 장르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날치라는 댄스 컴퍼니가 퓨전 밴드를 동원해 판소리를 연주하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서울·목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를 배경으로 만든 합작 판소리 '범 내려온다'가 그것이다.

목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달산·고하도·해상케이블카의 모습이 신나는 판소리에 실려 영상을 타는 모양새가 흥미롭다. 조희 수가 파죽지세인데 판소리의 변신이 가져온 결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퓨전 국악과 트롯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방송가의 주 무대를 장식하고 있다. 얼마 전에 종료된 미스 트롯 결선에서 13세 소녀가 국악으로 다듬어진 세련된 창법으로 '범 내려온다'를 당차게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통예술은 표현 방식과 선택의 폭이 일반 대중문화

기 고

'무등산 문학공원' 광주의 랜드마크로

편이다.

물론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 민주화운동 등은 퇴락해 가는 한 시대를 바로잡아 나간 정신문화의 중심이지만, 광주시민들이 고결한 정신을 가질 수 있게 한 원천의 유형적인 이미지는 사실상 없다. 생각해 보면 호남인들 정서의 밑바탕에는 왕성한 문학적인 소양과 기질이 정의로움으로 표출됨을 알 수 있다. 지리적·문화적·역사적으로 수려한 산수와 온화한 기후로 농경문화가 발달한 덕분에 우도농악과 판소리, 그리고 고려시대 해동제일 문장가인 김황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10대 한시 작가 모두를 배출하였다. 또한 무등산권은 가사문학이 태동하고 꽃을 피웠던 산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유에서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선거 후보는 광주를 문화수도도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적극 추진했다. 한데 문화전당이 문을 연지 6년이 되어 가지만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시설이나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특별한 예술인 단체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나 이용하기에는 교통부터 공간 이용, 동선을 연계하는 제약 요인이 너무 많다는 점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시가 이번엔 1km 이내 전시장·공연장·서점·극장·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집중시켜 도로로 18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18분 문화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은 빈약한 문화예술 하드웨어를 충족시키고, 광주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사업은 '아시아 문화 공원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무등산 자락에 유명 시인들의 시비를 건립하고 문화적 상상력을 높이기 위한 산책로·쉼터·장작 공간을 개설한다는 프로젝트이다. 무등산은 자유·인권·평등을 상징하는 광주의 랜드마크이다. 이처럼 넓은 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마련한다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부럽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사업이 형식에 흐르거나 하나의 구상으로 끝나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문학의 메카인 광주·전남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로서 그 위상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을 추진 주체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업 과정에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시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김용주
광주시문인협회 상임기획이사

무인 드론 택시를 시범 운행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보니 격세지감이 든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하였다. 당장 실현 불가능한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공유하면서 하나씩 이뤄 내며 첨단 우주과학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더욱 실감 난다. 무한한 능력을 지닌 개 인간이고 보면 불가능이란 낙약한 사람들에게나 어울린다는 말에도 공감이 간다.

최근 광주시가 '광주 문화 비전'을 제안했다. 그동안 뜻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광주에는 문화예술이 없다'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늦게나마 제시된 새로운 비전을 적극 환영하고 알차게 실현되길 기원한다. 사실 광주는 호남의 중심지이다. 광주를 둘러싼 외부 지역의 생활문화가 유입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정신문화를 꽃피워 낸 곳이다. 그래서인지 인근 지역인 담양·화순·장성·나주에 비해 광주는 역사 문화적 하드웨어가 빈약한

無等鼓

끊임없는 창작 열정으로 주옥같은 작품을 발표해 온 두 소설가가 있다. 원로 작가 문순태와 한승원. 이들은 그동안 남도 문단을 넘어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두 작가 모두 1939년생으로 올해 83세이지만 여전히 문학청년 같은 열정으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문 작가의 글쓰기 여정을 담은 대문순태와 한승원 (문순태와 한승원)은 '문순태와 한승원' (소명출판)에는 중·단편 147편 가운데 최종 선정된 65편이 수록돼 있다. '징

문순태와 한승원

거 있어 잔잔한 울림을 준다. 특히 설화속 '고려장' 이야기를 예로 들며 어머니가 돌아갈 아들을 위해 산길에 솔잎을 뿌려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은 아련한 죽비처럼 다가온다.

동년배 소설가인 문순태와 한승원은 그동안 남도 정서를 모티브로 의미 있는 작품을 써 왔다.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닮은 듯 보이는 이들을 문학계의 미의 '일란성 쌍생아'라고 평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오래 전 귀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한때

중·단편 선정 (소명출판)에는 중·단편 147편 가운데 최종 선정된 65편이 수록돼 있다. '징작가를 멈추지 않는 두 작가의 문단'이라는 문단에서 문단의 의미를

무엇인지 생각해 된다. 인생 만년에 이른 두 작가의 말에서 문학을 왜 하며 삶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어렵게 짐작할 뿐이다.

"글을 쓰는 한 살아 있고, 살아 있는 한 글을 쓸 것이다. ...이야기의 힘이 나를 있게 했고 그것이 나를 건설했다." (한승원) "소설은 내 스승이었고 종교였으며 생명이었다. 소설을 쓸 때만이 내 자신에 대한 실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순태) / 박성진 문화부 부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